

29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2016-17년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의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최종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2016-17년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의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최종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01

## 들어가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이다. 한국 현대사를 짓눌렀던 독재체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저항을 통해 무너졌다. 또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역시 자발적 대중저항에 의해 구출되곤 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이 이러하기에 한국현대사에는 기념비적인 민주화 운동들이 여럿 자리매김하고 있다. 1960년 4월혁명,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2016-17년 촛불항쟁 역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촉발된 촛불항쟁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강제'하면서 급기야 현직 대통령을 '퇴진'시켰다. 2017년 5월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 역시 촛불항쟁에 빛진 바가 크다. 촛불항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런데 2016-17년에는 촛불항쟁 말고도 집회가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일명 '태극기' 집회가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여 결집한 태극기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이 결정된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주로 나이든 노인세대에 의해 이끌어지고는 있지만 태극기집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동원되지 않은 보수진영 최초의 자발적 대중정치집회라고 평가되기도 한다(이정엽 2017, 39).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지향하며 서로에 맞서는 일종의 '대응사회운동(countermovement)'이다.<sup>1</sup> 촛불집회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 결집되었다면 태극기집회는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 결집되었다. 그렇기에 태극기집회는 촛불집회에 맞선 '맞불' 집회라고도 불린다.<sup>2</sup> 때때로 촛불집회는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집회는 서울시청

1) 대응사회운동이란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상반되며 서로에 반대하여 결집되는 사회운동을 가리킨다(Lo 1982). 미국 등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낙태찬반운동이 대표적이다(Meyer and Staggenborg 1996).

2) 2016-17년 촛불항쟁과 태극기집회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라는 개념을 주되게 사용하되 때때로 '촛불항쟁', '맞불집회'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서울신문 2016/12/24).

그런데 이처럼 두 집회가 서로 대립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다룬 연구들은 특정한 경향성을 보여왔다. 촛불집회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촛불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손호철 2017; 최장집 외 2017; 이지호 외 2017), 태극기집회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태극기집회를 비판적으로 다룬다(김진호 2017; 박현선 2017; 김왕배 2017). 양자를 비교할 때에도 촛불집회의 긍정성과 태극기집회의 부정성을 대비시킨다(이정엽 2017).

이러한 연구경향성이 일정부분 팩트에 기반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목표만 하더라도 그렇다. 촛불항쟁은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비상식적 통치에 저항했다(박찬표 2017; 최종숙 2017). 그렇기에 촛불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후퇴의 ‘마지노선’을 방어하기 위한 항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김윤철 2018). 당연히 그런 촛불항쟁에 맞선 태극기집회는 상식에 맞서는 비상식, 민주주의에 맞서는 비민주주의를 위한 집단 행동에 가깝다. 더구나 다양성과 민주주의 실험으로 가득했던 촛불항쟁의 생기발랄함과 철 지난 군가며 종북타령이 울려퍼지는 태극기집회의 모습은 이러한 상반된 평가를 불러오기 안성맞춤인 구도였다.

그렇다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은 어떠할까? 촛불집회의 목표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고 태극기집회의 목표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촛불집회 참여자는 민주주의 경계선 안쪽에, 그리고 태극기집회 참여자는 민주주의 경계선 바깥쪽에 위치한 비민주주의자들일까? 당장 모순점이 보이기도 한다. ‘우파 광신도’의 집회라고 비판되곤 하는 태극기집회는 나름 합법의 테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자체 조사를 통해 선동에 취약한 ‘돈받고 동원된 가난한’ 노인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이 ‘고학력 중산층’ 노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18/8/27).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 석방을 외치며 ‘계엄령’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이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극기집회에 대한 몇몇 극단적 묘사들 그리고 몇편의 에피소드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어떠한지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여 혹은 지지자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주도층은 누구인가? 그들은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나 이질적인 존재인가? 둘째,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은 어떠한가? 특히 태극기집회 참여 혹은 지지자의 민주주의 의식은 과연 우려스러운 수준인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로 보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박근혜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

이 글이 분석을 위해 사용한 설문조사자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7년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한달간 20세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민의식종합조사 자료이다. 설문대상자 모집방법은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이며 설문조사는 온라인(50대 이하), 대면조사(60대 이상)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sup>3</sup>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8.0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시민의식종합조사에서 나타난 태극기집회 실제 참여자는 그 비율이 매우 적었다. 따라서 태극기집회 참여자와 함께 태극기집회 지지자(긍정평가자)의 응답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특정의 집회를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과 그 집회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다르다. 실제 태극기집회도 긍정평가자의 비율은 30%가 넘지만 실제 참여자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이 이 사실을 반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 역시 시론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은 촛불항쟁과 태극기집회 참여자 혹은 지지자의 민주주의 의식을 비교하고 그것이 우리사회에 위협적인 수준인지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따라서 태극기집회 참여자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지자로 범위를 넓혀 이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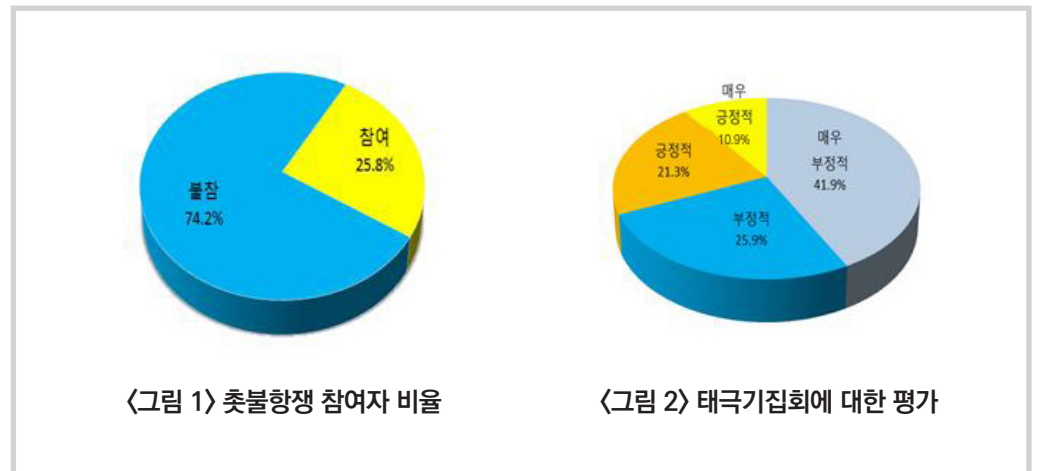
---

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이다. 조사와 관련 좀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 제1장 참조.

## 02

## 촛불집회 참여자,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 분포

먼저 촛불집회 참여자와 태극기집회 참여자 및 지지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측정한 시민의식종합조사에서 2016-17년 촛불집회 참여자는 25.8%였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 가운데 4분의 1정도가 촛불집회에 한 차례 이상 참여한 셈이다.



다음으로 태극기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보면, 다소 긍정하는 사람 21.3%, 매우 긍정하는 사람 10.9%로 합쳤을 때 32.2%다(〈그림2〉 참조). 세명 중 한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율이 태극기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태극기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태극기집회에 실제 참여한 사람은 8% 정도에 불과했다.<sup>4</sup> 태극기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모두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촛불항쟁의 경우도 참여자에 비해 지지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글이 활용하는 시민의식종합조사는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하지 않아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이현우 교수진의 연구에서는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촛불항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현우 외 2017, 54).

그렇다면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태극기집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다음 <표1>을 보면 촛불집회 참여자의 74% 이상이 태극기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25% 가량 된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진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이현우 외 2017)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태극기 집회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태극기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태극기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가운데 촛불집회에 참여한 비율(20.6%)이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비율(8%)보다 더 높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다만 촛불 참여자들은 전체 응답자(67.8%)보다 태극기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고(74.3%) 태극기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25.8%)보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비율이 더 낮았다(20.6%)는 점은 지적해 둘 필요가 있겠다.

<표1> 촛불집회 참여여부에 따른 태극기집회에 대한 평가 빈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카이제곱 검정
참여자	152(58.2)	42(16.1)	34(13.0)	33(12.6)	47.871***
불참자	272(36.2)	220(29.3)	182(24.2)	77(10.3)	
전체	424(41.9)	262(25.9)	216(21.3)	110(10.9)	

\* 통계적 유의도는 \*p<0.05, \*\*p<0.01, \*\*\*p<0.001(이하 동일)

## 03

## 촛불·태극기 집회, 주도층은 누구인가?

이제 촛불집회, 태극기집회의 주도층이 누구인지 살펴볼 차례다. 기초배경변수별로 촛불집회 참여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2>다. 표를 보면 촛불집회 주도층은 남성, 2050세대,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 중간정도의 소득수준, 중도와 진보적 성향을 갖는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촛불참여자의 이러한 특성은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이지호 외 2017; 이현우 외 2017; 이재철 2017).<sup>5</sup>

<표2> 기초 배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촛불집회 참여자의 특징

빈도(%)

		참여자	불참자	카이제곱검정
성별	남성	150(57.5)	356(47.5)	7.853**
	여성	111(42.5)	395(52.6)	
연령	20대	60(23.0)	120(16.0)	66.541***
	30대	60(23.0)	119(15.8)	
	40대	65(24.9)	141(18.8)	
	50대	61(23.4)	140(18.6)	
	60대이상	15(5.7)	231(30.8)	
학력수준	중졸이하	5(1.9)	149(19.8)	62.196***
	고졸	45(17.2)	176(23.4)	
	대학재학이상	211(80.8)	426(56.7)	

5) 촛불항쟁의 주도세력이 수도권에 젊은 고학력 중간소득수준을 갖는 남성 진보주의자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역의 나이든 저학력 저소득 여성 중도 내지는 보수주의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음을 뜻하지 않는다. 저소득자, 보수층, 여성, 이들은 전통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계층이다(이갑윤 2010). 그러나 분석결과를 보면 여성을 비롯하여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보수, 영남거주자의 참여비율이 모두 두 자리수를 넘겼다. 이처럼 주도세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비해 적지않은 비율의 주변세력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민주화 이후 발생했던 다른 집회들과 2016-17년 촛불항쟁을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43(16.5)	179(23.8)	10.940**
	200-500만원	133(51.0)	395(52.6)	
	500만원이상	85(32.6)	177(23.6)	
이념성향	보수	31(11.9)	253(33.7)	56.014***
	중도	111(42.5)	300(39.9)	
	진보	119(45.6)	198(26.4)	
거주지역	수도권	154(59.0)	343(45.7)	17.189**
	충청권	22(8.4)	83(11.1)	
	호남권	27(10.3)	81(10.8)	
	영남권	48(18.4)	213(28.3)	
	기타	10(3.8)	31(4.1)	
합계		261(25.8)	751(74.2)	

태극기집회의 경우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응답자를 합하여 ‘태극기집회 지지자’로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응답자를 합하여 ‘태극기집회 반대자’로 단순화한 뒤 태극기집회 지지자, 반대자의 기초배경변수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3>을 보면 태극기집회 지지자의 주도층은 60대 이상, 대졸 이상의 고학력, 중간정도의 소득수준, 중도적 이념성향을 갖는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령의 경우 60대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 20대였다. 다만, 모든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 지지를 받았던 촛불집회의 경우와 달리 태극기집회의 경우는 연령, 이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서 통계적으로는 지지되지 못했다.

<표3> 기초배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극기집회 지지자의 특성

빈도(%)

		지지자	반대자	카이제곱검정
성별	남성	162(49.7)	344(50.1)	0.018
	여성	164(50.3)	342(49.9)	
연령	20대	75(23.0)	105(15.3)	20.641***
	30대	57(17.5)	122(17.8)	
	40대	43(13.2)	163(23.8)	
	50대	64(19.6)	137(20.0)	
	60대이상	87(26.7)	159(23.2)	
학력수준	중졸이하	56(17.2)	77(23.6)	2.984
	고졸	98(14.3)	144(21.0)	
	대학재학이상	193(59.2)	444(64.7)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78(23.9)	144(21.0)	1.832
	200-500만원	171(52.5)	357(52.0)	
	500만원이상	77(23.6)	185(27.0)	
이념성향	보수	94(28.8)	190(27.7)	14.908**
	중도	155(47.5)	256(37.3)	
	진보	77(23.6)	240(35.0)	
거주지역	수도권	172(52.8)	325(47.4)	5.792
	충청권	28(8.6)	77(11.2)	
	호남권	28(8.6)	80(11.7)	
	영남권	85(26.1)	176(25.6)	
	기타	13(4.0)	28(4.1)	
합계		326(32.2)	686(67.8)	

한편, 앞서도 언급했지만 태극기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가운데 태극기집회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그 빈도수가 매우 적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태극기집회 참여자의 기초배경변수별 특성을 살펴보면(〈표4〉 참조), 성별에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연령에서는 60대 이상과 20대의 비율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중간소득층과 함께 저소득층의 비율도 높다. 대졸이상의 고학력, 중도층,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높았던 점은 태극기집회 지지층과 동일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얻지는 못했다.

〈표 4〉 기초배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극기집회 참여자(긍정평가자 중)의 특성 빈도(%)

		참여자	불참자	카이제곱검정
성별	남성	11(42.3)	151(50.3)	0.616
	여성	15(57.7)	149(49.7)	
연령	20대	7(26.9)	68(22.7)	1.601
	30대	6(23.1)	51(17.0)	
	40대	2(7.7)	41(13.7)	
	50대	4(15.4)	60(20.0)	
	60대이상	7(26.9)	80(26.7)	
학력수준	중졸이하	3(11.5)	53(17.7)	0.680
	고졸	7(26.9)	70(23.3)	
	대학재학이상	16(61.5)	177(59.0)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0(38.5)	68(22.7)	3.553
	200-500만원	10(38.5)	161(53.7)	
	500만원이상	6(23.1)	71(23.7)	
이념성향	보수	8(30.8)	86(28.7)	0.303
	중도	13(50.0)	142(47.3)	
	진보	5(19.2)	72(24.0)	
거주지역	수도권	17(65.4)	155(51.6)	6.144
	충청권	0(0.0)	28(9.3)	
	호남권	2(7.7)	26(8.7)	
	영남권	7(26.9)	13(4.3)	
	기타	0(0.0)	28(4.1)	
합계		26(8.0)	300(92.0)	

그럼에도 이상의 결과는 나름 흥미롭다. 촛불·태극기집회는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도 성향의 대학 이상 고학력, 중간소득층이 이끌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에는 익숙한 이 조합이 태극기집회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낮설다. 특히 ‘중도·고학력·중간소득층’이 주목된다. 태극기집회 참여자는 ‘돈 받고 동원된 가난한 노인’, ‘군가 트는 극우 집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참여자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 결과는 태극기집회도 고등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소득을 갖는, 따라서 ‘선동’과 ‘세뇌’가 아닌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결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태극기집회 주도층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산층’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이 조사에서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조선일보 2018/8/27).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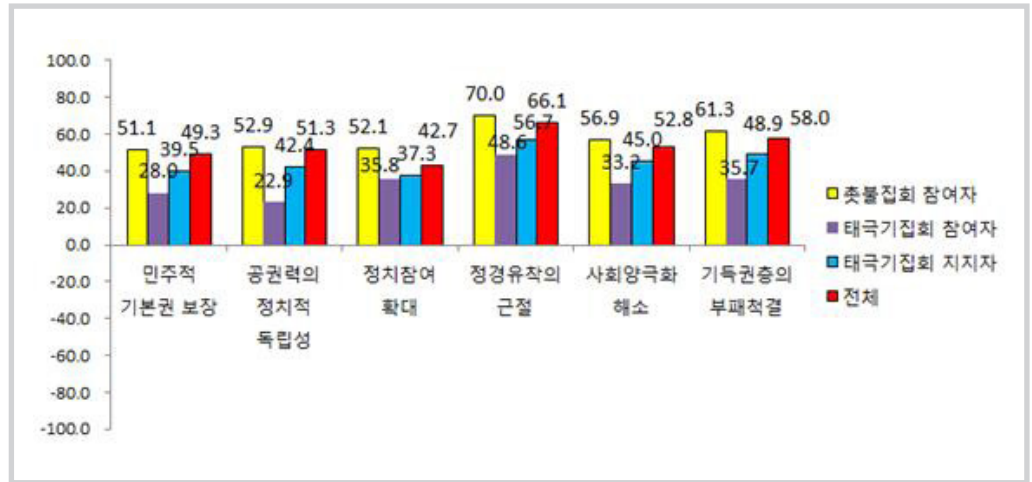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와  
민주주의 의식

다음으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여·지지자의 민주주의 의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헌법 위에 군림하며 정치적 상식을 벗어난 통치를 자행한 현직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 촛불항쟁은 무너진 상식, 훼손된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종의 '민주화운동'이었다. 따라서 촛불항쟁 참여자의 민주주의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헌법을 위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는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려고 하는 운동에 가깝다. 그렇다면 태극기집회 참여자,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의식수준은 어떠할까? 태극기집회의 목표처럼 태극기집회 참여자,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의식도 비민주적일까?

이 글에서 민주주의 의식은 제도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민주주의, 개인적·실천적 수준의 민주주의, 문제해결방안으로서 민주주의 세 차원에서 측정했다. 우선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의식을 다루는 여러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민주주의의 기본항목들, 1) 민주적 기본권보장, 2)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3) 정치참여확대 등과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 4) 정경유착의 근절 5)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의 요소, 그리고 6) 기득권의 부패척결을 포함시켜 이 항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측정했다. 개인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는 투표, 탈세안하기, 준법, 다른 의견 존중 등의 민주적 실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했다. 이어서 갈등해결방안으로서 민주적 수단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영향 및 직접행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3>은 민주주의 기본항목들(제도적 차원)에 대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점수값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각 항목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은 플러스 점수(최고점은 100점)를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마이너스 점수(최저점은 -100점), 중간입장은 0점이 되도록 환산하여 나타냈다.<sup>6</sup>

6) 모든 항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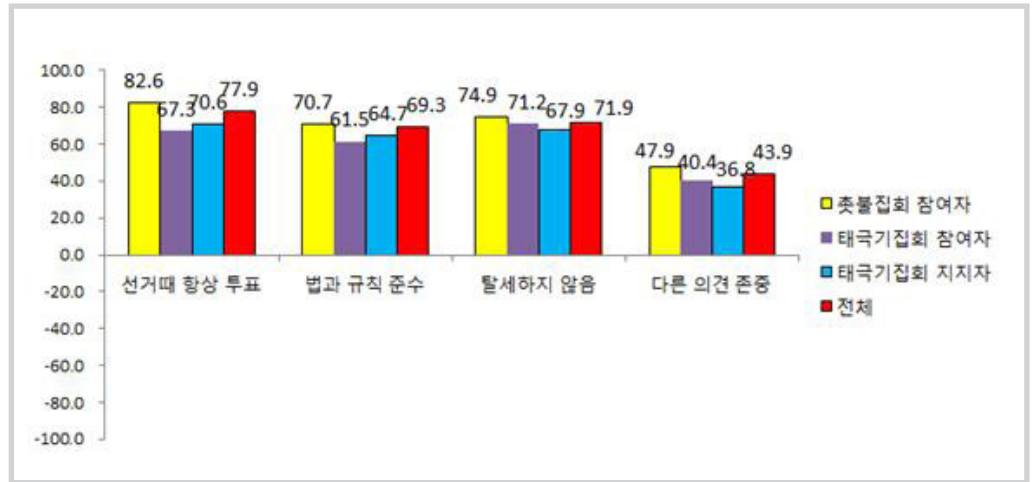
〈그림 3〉 민주주의 기본항목의 중요성(제도적 차원)

〈그림 3〉을 보면 촛불집회 참여자는 물론 태극기집회 참여자, 지지자도 모든 항목에서 플러스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각 항목이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기본권의 보장,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정치참여확대 등과 같은 정치적 차원 이외에도 정경유착의 근절, 사회양극화 해소와 같은 경제민주화 차원, 또 기득권층의 부패척결 부분에서도 촛불집회는 물론이고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 역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촛불집회 참여자의 점수는 전체 국민 평균점수보다 높았던 반면 태극기집회 참여자와 지지자의 점수는 전체 국민 평균점수보다 일괄적으로 낮았다. 특히 태극기집회 참여자의 점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항목의 경우 전체 국민 평균점수보다 30점 가까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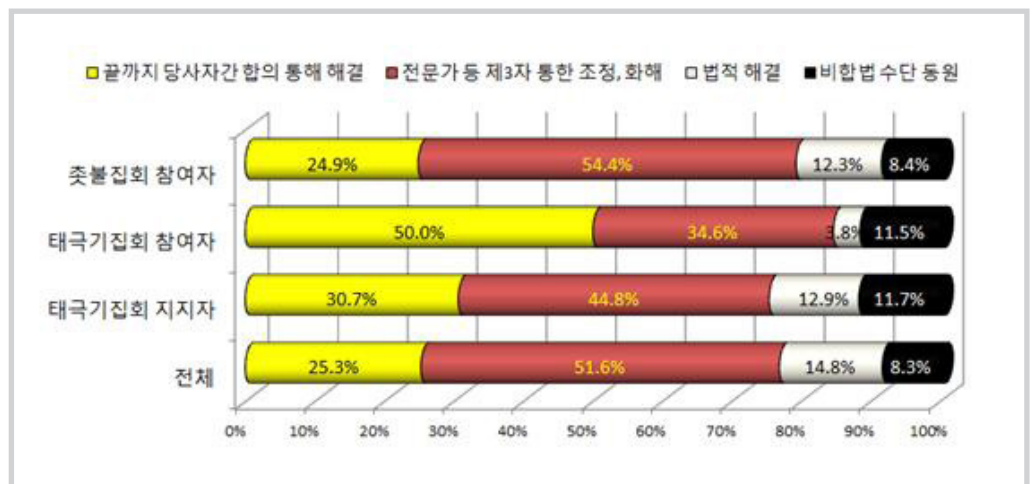
다음으로 개인적, 일상적 민주주의 실천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본 것이 다음의 〈그림 4〉이다.<sup>7)</sup> 그림을 보면 선거때 항상 투표하기, 법과 규칙 준수, 탈세하지 않기, 다른 의견 존중 등 모든 항목에서 촛불집회 참여자,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의 점수는 플러스 점수를 보였다. 모든 항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촛불집회 참여자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전체 국민평균이 그 뒤를 이었으며 태극기집회 참여자와 지지자의 점수가 앞서거나 뒷서거나 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7) 모든 항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림에서 점수는 최저점=-100점, 중간=0점, 최고점 100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림 4〉 민주적 실천의 중요성(개인적 차원)

다음 〈그림 5〉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 촛불집회 참여자,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낸 것이다. 〈그림 5〉를 보면 촛불집회 참여자의 54.4%는 전문가 등 제3자 통한 조정, 화해 방식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24.9%는 당사자간 합의통한 해결, 12.3%는 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91.6%가 민주적, 합법적 방법을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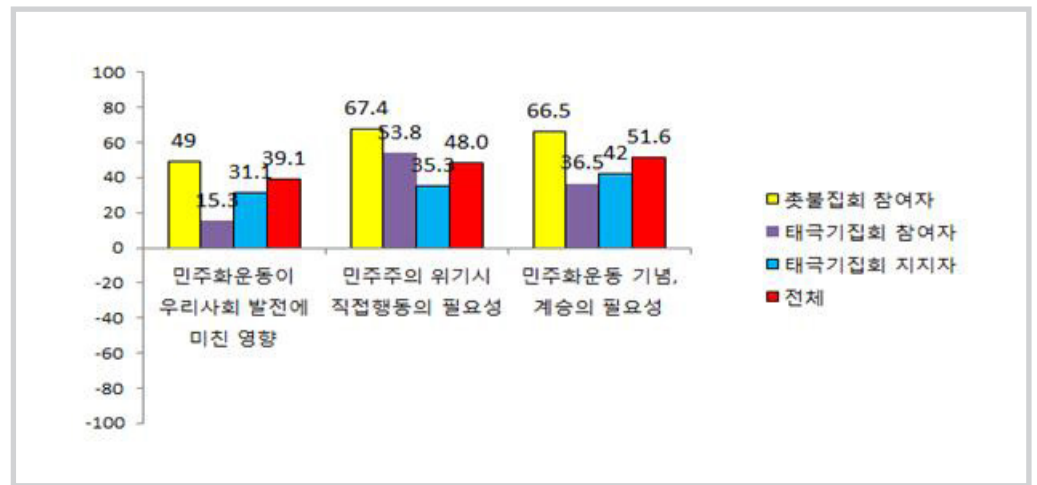


〈그림 5〉 갈등사안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태극기집회 참여자는 절반인 50%가 당사자간 해결을 선택했고 전문가 통한 조정 34.6%, 법적 해결 3.8% 순으로 응답했다. 역시 88.5%라는 압도적인 비율이 민주적, 법적 해결방식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태극기집회 지지자도 큰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 등 제3자 통한 조정, 화해(44.8%)>당사자간 합의(30.7%)>법적해결(12.9%) 순으로 응답했고 비합법

수단 동원은 오직 11.7%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촛불집회 참여자는 물론이고 태극기 집회 참여자·지지자도 갈등해결방법으로 불법적 수단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촛불항쟁 참여자와 태극기집회 참여·지지자는 민주화운동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점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는 플러스 점수가 되도록 하고 부정적 평가는 마이너스 점수가 되도록 환산하였다.<sup>8</sup> <그림 6>을 보면 촛불항쟁 참여자, 태극기집회 참여자, 태극기집회 지지자 모두 점수가 플러스 점수임을 알 수 있다. 민주화운동이 우리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촛불항쟁 참여자는 전체 국민 평균보다 점수가 높지만 태극기집회 지지자와 참여자의 점수는 그보다 낮다. 민주화운동기념·계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위기시 직접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촛불항쟁 참여자>태극기집회 참여자>전체 평균>태극기집회 지지자 순이다. 직접행동을 경험해 본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의 행동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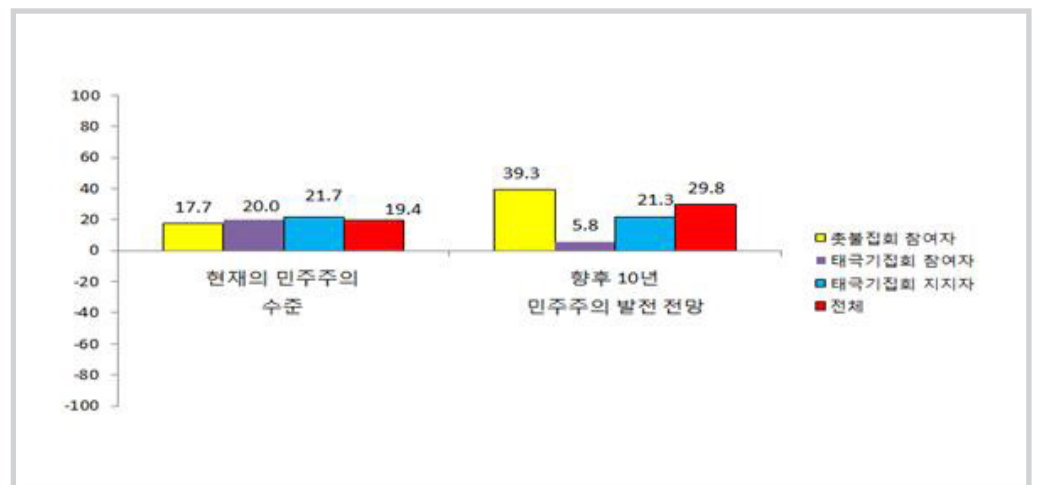


<그림 6> 민주화운동의 영향, 필요성과 기념·계승

마지막으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는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며 미래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7>을 보면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촛불집회 참여자, 태극기집회 참여자, 지지자 모두 20점 안팎의 비슷한

8) 민주화운동의 영향은 4점척도(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민주주의 위기시 직접행동의 필요성과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은 5점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를 환산하였다.  
 9)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은 0-10점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고(0-4점 비민주적이다, 5점 그저그렇다, 6-10점 민주적이다) 10년 이내의 민주주의 수준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점수 환산은 앞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중간점수를 0으로 하고 부정적 평가는 마이너스(최저 -100), 긍정적 평가는 플러스 점수(최고 +100)가 되도록 했다.

점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플러스 점수대라는 점에서 민주화는 되었다고 보지만 점수 값이 높지 않다. 촛불집회 참여자의 점수가 다소 낮기는 하지만 태극기집회 참여자 점수도 월등히 높지 않다. 그런데 향후 10년 후의 민주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점수값의 편차가 다소 큰 편이다. 촛불집회 참여자와 전체 국민 평균값은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값보다도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태극기집회 참여자와 지지자의 값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여자의 점수는 플러스 점수대이긴 하지만 5.8점에 불과하다.



〈그림 7〉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와 미래 민주주의 발전 전망

이 조사가 2017년 19대 대선 직후에 실시된 조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미래의 민주주의 전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촛불참여자와 전체 국민은 박근혜 정부 보다 문재인정부가 민주화를 더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태극기집회 지지자와 참여자는 미래의 민주주의가 현재보다도 더 나빠질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촛불항쟁 참여자나 태극기집회 참여자, 지지자 모두 넓은 범위에서 민주주의자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태극기집회 참여자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지만 이들마저도 대체로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제도, 민주적 실천, 민주적 수단 등 모든 면에서 태극기집회 참여자, 지지자의 의식은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념·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민주주의 위기시 직접행동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다.



---

다만, 민주화 이후 30년 그리고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의식은 한층 성숙했다. 촛불항쟁 참여자들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의식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최선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이다. 반면 태극기집회 참여자, 지지자의 민주주의 의식은 촛불항쟁 참여자는 물론이고 국민 평균수준의 의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태극기집회의 모습이 퇴행적이며 구태스럽다는 비판이 지지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음에도 태극기집회가 그것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과거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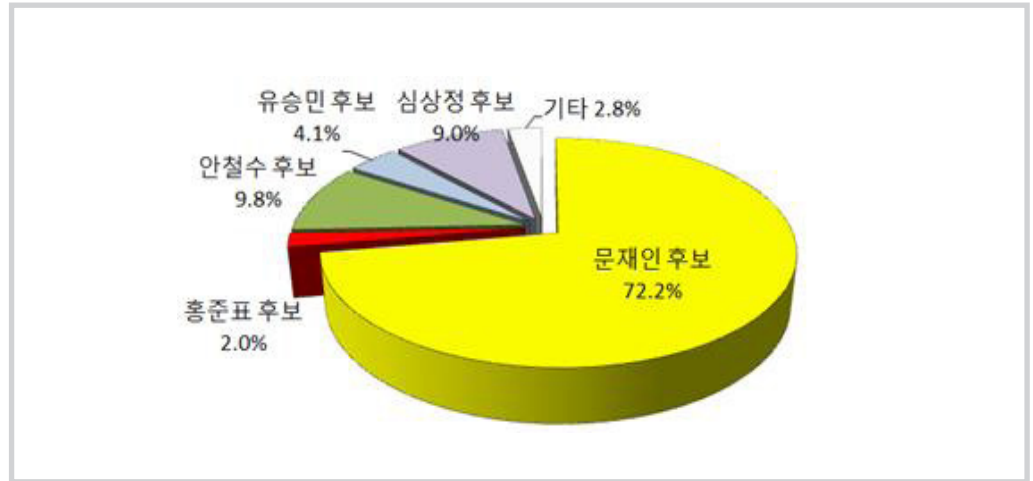
## 05

##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와 2017년 대통령 선거

마지막으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중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하차했기 때문에 19대 대통령 선거는 애초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이 아닌 5월에 조기실시되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이 앞당겨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2017년 대선 역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와 밀접히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 혹은 지지자는 19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을까?

촛불항쟁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을 뿐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은 아니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출신 후보의 당선은 막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꿔 단 자유한국당 출신 후보들이 모두 중도에서 낙마하거나 당선권 밖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진보·개혁진영에서의 후보단일화 요구도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후보단일화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촛불항쟁을 지지하는 후보들 간의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촛불시민들도 지지하는 후보를 따라 지지층이 나뉘어 있었다(최종숙 2018, 32). 따라서 촛불항쟁을 이끌었던 퇴진행동 역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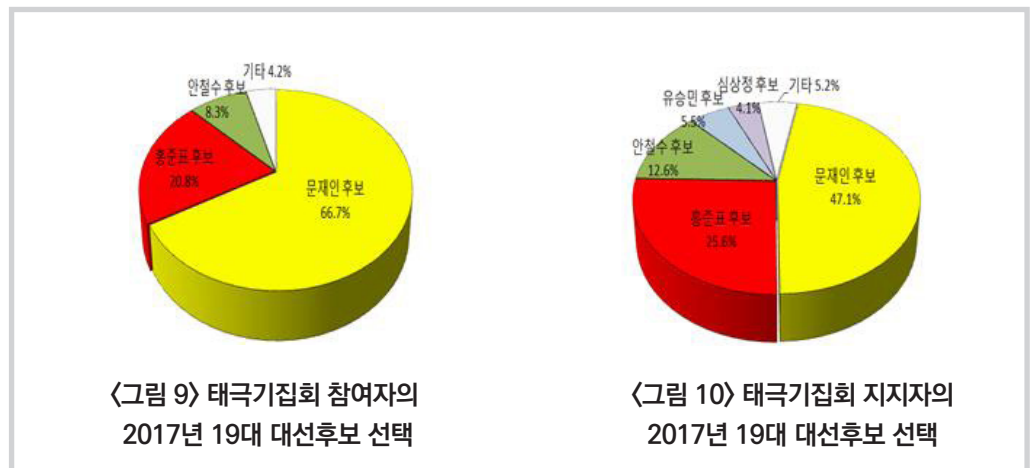
그렇다면 촛불항쟁 참여자는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가장 많이 선택했을까? <그림 8>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촛불정부'라고 부르고 자신의 뿌리를 촛불항쟁에 두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그림 8〉 촛불항쟁 참여자의 2017년 19대 대선후보 선택

한편, 태극기집회 주최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국면이 시작되었을 때 촛불항쟁의 퇴진행동과 달리 대선에 적극 개입하고자 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한겨레 2017/3/17).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태극기집회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후보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당선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비박계로 분류됐던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되었을 때 태극기집회 지지자들은 ‘태극기 신당’ 창당 문제를 놓고 내분을 겪기도 한다. 홍준표 후보는 한편으로는 촛불민심을 우려해 박근혜·태극기집회와 거리를 두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여전히 태극기 세력과 같은 편임을 어필해 나갔다(세계일보 2017/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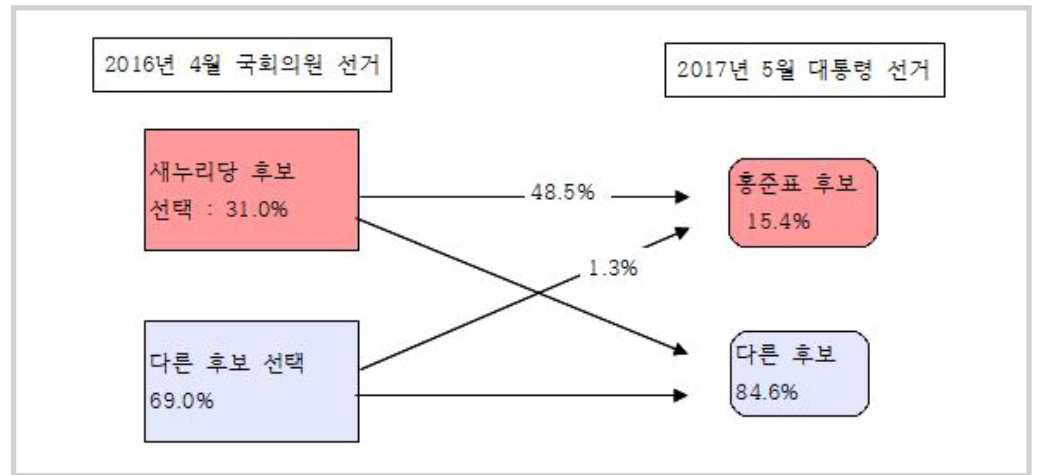
그렇다면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후보는 누구일까? 흥미롭게도 홍준표 후보 혹은 제3의 보수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였다(〈그림 9〉, 〈그림 10〉 참조).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들이 볼 때도 ‘태극기 신당’은 물론이고 홍준표 후보도 보수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그림 9〉 태극기집회 참여자의 2017년 19대 대선후보 선택

〈그림 10〉 태극기집회 지지자의 2017년 19대 대선후보 선택

사실 홍준표 후보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다음 <그림 11>은 2016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2017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얼마나 선택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2016년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 가운데 절반이 되지 않는 48.5%만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다. 절반이상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이탈한 셈이다. 2016년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 가운데 2017년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사람은 1.3%에 불과했다. 홍준표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정당 지지층의 이탈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지층으로 지지를 확장하는 데에도 실패한 것이다.



<그림 11> 2017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 축소와 이탈

그런데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태극기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5>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태극기집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표를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9%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리고 이들은 1년 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절반 이상이 홍준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로 선택지를 변경했다(<표 6> 참조).

<표 5>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의 태극기집회 평가 빈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카이제곱 검정
새누리당 후보 선택	53(19.4)	108(39.6)	88(32.2)	23(8.8)	110.614***
다른 후보 선택	315(53.1)	121(20.4)	82(13.8)	75(12.6)	
전체	368(42.5)	229(26.4)	170(19.6)	99(11.4)	

〈표 6〉 태극기집회 평가에 따른 19대 대선 후보 선택(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선택자만을 대상으로 함) 빈도(%)

	홍준표 후보	나머지 후보	카이제곱 검정
태극기집회 지지자	69(62.7)	41(37.3)	15.314***
태극기집회 반대자	59(38.3)	95(61.7)	
전체	128(48.5)	136(51.5)	

민주화 30년, 그리고 촛불항쟁에 대한 경험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집회나 보수정당은 구태적인 방식을 버지않고 과거회귀형 정치를 답습해 왔다. 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마저 돌아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가?

## 결론

이 글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여 혹은 지지자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제 앞의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 볼 차례다. 첫째,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주도층은 누구인가? 그들은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가? 촛불·태극기집회는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도성향의 대학 이상 고학력, 중간소득층이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양자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소득을 갖는, 따라서 ‘선동’과 ‘세뇌’가 아닌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세대간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은 어떠한가? 특히 태극기집회 참여 혹은 지지자의 민주주의 의식은 우려스러운 수준인가? 촛불항쟁 참여자나 태극기집회 참여자, 지지자 모두 넓은 범위에서 민주주의자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전체 국민평균과 비교했을 때 촛불집회 참여자와 태극기집회 참여자의 차이는 크다. 촛불항쟁 참여자의 민주주의 의식은 시종일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최선두에 서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반면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의 민주주의 의식은 전체 국민 평균 의식보다 한참 낮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세 번째 질문 즉,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그리고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의식은 한층 성숙해졌다. 그러나 태극기집회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처럼 합법적 테두리 안에 머무는 한 일반 국민들의 관용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철지난 군가, 한물간 색깔론이 계속된다면 이들에 대한 혐오감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셋째, 박근혜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촛불·맞불집회 참여자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촛불·맞불집회 참여자는 모두 문재인 후보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검토를 거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의 함의는 분명하다. 태극기집회 참여자·지지자들이 볼 때도 ‘태극기 신당’은 물론이고 홍준표 후보도 보수의 대안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또 한번 패배했다. 한물 간 ‘색깔론’을 부여잡고 퇴행적인 정치를 계속한다면 돌아선 전통지지자들마저 되돌아올 날은 요원할지도 모른다. 보수 정치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

## 참고문헌

1. 김왕배. 2017.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7-59.
2. 김윤철. 2018. “2016~17년 촛불집회의 역사적 맥락과 ‘마지노선 민주주의.’” 『21세기정치학회보』 8(1). 1-19.
3. 김진호. 2017. “‘태극기집회’와 개신교 우파: 또 다시 꿈틀대는 극우주의적 기획.” 『황해문화』여름. 76-93.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 『시민의식종합조사 결과보고서』.
5. 박찬표. 2017. “촛불과 민주주의: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한국 시민사회의 장점과 한계.” 『양손잡이 민주주의: 한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후마니타스. 173-252.
6. 박현선. 2017. “태극기집회의 대중심리와 텅 빈 신화들.” 『문화과학』91. 106-133.
7. 손호철. 2017. “‘11월 시민혁명’, ‘광장’과 대의제를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연구』 14(1). 18-43.
8. 이갑윤. 2010.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보』9(1). pp. 95-120.
9. 이재철. 2017.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정치적 향의: 수도권 유권자 분석.” 『사회과학연구』 24(4). 61-82.
10. 이정엽. 2017. “문화투쟁과 투쟁의 문화: ‘촛불’과 ‘태극기’의 문화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여름 통권 67호. 38-51.
11. 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촛불민심 경험분석』. 책담.
12. 이현우·이지호·서복경. 2017. “‘촛불’·‘맞불’집회에 대한 태도와 19대 대선: 일관적 유권자와 상충적 유권자.” 『현대정치연구』 10(2). 43-75.
13. 최장집·서복경·박찬표·박상훈. 2017. 『양손잡이 민주주의: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후마니타스.
14. 최종숙. 2017. “‘촛불’, ‘태극기’, 그리고 5070세대 공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KDF 민주주의 리포트> 11호.
15. 최종숙. 2018.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에서 정당과 사회운동조직의 역할.” 『사회와 역사』 제117집. 7-43.
16. Lo, Clarence Y. H. 1982. "Countermovement, and Conservative Movements in the Contemporary U. S." Annual Review of Sociology 8. 107-134.
17. Meyer, David S. and Suzanne Staggenborg. 1996. "Movements, Countermovements,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6). 1628-60.

###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16/12/24. “성탄 전야 ‘웃픈’ 촛불 축제.”
- 세계일보. 2017/3/31. “홍준표 ‘박근혜 이제 용서할 때 됐다’...본선 레이스는 험난 예고.”
- 조선일보. 2018/8/27. “태극기 집회엔 돈받고 동원된 노인뿐?...대졸·중산층이 절반 넘어.”
- 한겨레. 2017/3/17. “자유한국당 경선장, ‘태극기부대’가 점령...인명진에 ‘내려와’”

# 2016-17년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의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8년 9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